

2023-08-21 (2023-31호)

08월 21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연고점에서 맞는 금통위 · 잭슨홀 이벤트... 방향성 · 변동성 확대 가능성

서울, 8월2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대형 이벤트를 맞아 변동성을 대폭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10-1,350원이다.

금주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는 국내외 금융시장 방향성을 견인할 주 후반에 있을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이다.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으며 투자심리를 냉각시킨 터라 오는 24일~26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연설을 통해 미국 통화정책 기조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장 해석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대거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파월 의장의 강한 긴축 메시지에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친 바 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25일 오후 11시5분(한국시간)에 있을 예정으로 잭슨홀 이벤트 결과에 대한 원화의 직접적인 반응은 다음 주초에 반영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경기악화와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 우려가 촉발시킨 리스크 오프와 위안 약세에 원화가 동반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발표되는 중국 대출우대금리(LPR)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사전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원이 LPR 1년물과 5년물 모두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모기지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5년물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결정이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최근 중국발 우려가 쉽게 걷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많은 만큼 위안을 비롯한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둬야할 듯하다.

최근 당국 개입 등의 영향으로 약세 속도를 조절중인 위안 행보가 당분간 원화의 가장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책회의도 예정돼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금통위원 시각을 엿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율이 연고점까지 급등하다보니 외환당국의 연이은 시장 변동성 관리가 추정되고 있다. 대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최대 관건이지만 금통위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당국 개입 변수는 영향력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8월 제조업을 비롯해 주택매매지표 등을 바탕으로 미국 현 기 판단 속 금리와 증시 변동성이 확대 될지도 챙겨봐야한다.

국내로는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지표와 무역수지,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 7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등이 대기하고 있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8월21일(월)

- ⊙ 관세청: 8.1~20일 수출입 현황

8월22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 (06:00)
- ⊙ 한국은행: 임시국회 현안질의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0:00)
- ⊙ 한국은행: 2023년 2/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8월23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한국은행: 2023년 2/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2:00)

8월24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 ⊙ 기획재정부·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3.8월) (13:30)
- ⊙ 한국은행: 2023년 9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 ⊙ 기획재정부: 2023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8월 발행실적 (배포시)

8월25일(금)

-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1:00)
- ⊙ 한국은행: 2023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17: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8월21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8월21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물	8월		3.55%
8월21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물	8월		4.20%
8월22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6월		-11.30B
8월22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7월	4.15M	4.16M
8월2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8월		49.6
8월23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8월18일 주간		193.0
8월23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7월		1.442M
8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8월	19.4	49.0
8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8월	52.3	52.3
8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종합 PMI 잠정치	8월		52.0
8월23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8월	-14.3	-15.1
8월23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7월	0.706M	0.697M
8월24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7월	-4.0%	4.6%
8월24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14일 주간	240k	239k
8월24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7월		-0.32
8월25일	00:00	미국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8월		-20
8월25일	08:30	일본	도쿄 CPI	8월		3.2%
8월25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8월	71.1	71.2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22일(화)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2023 댈빌상공회의소 경제전망 업데이트 조찬모임서 연설 (오후 8시30분)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8월 비제조업 기업 전망 서베이 공개 (오후 9시30분)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시카고 연방은행 주최 행사 참석 (23일 오전 3시30분)

8월24일(목)

- ⊙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 2023 잭슨홀 경제 정책 심포지엄 (26일까지)

8월25일(금)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오후 11시5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연설 (26일 오전 4시)

▶ 금주 세계 주요 이슈

⊙ 잭슨홀 회의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 중앙은행 총재 및 경제전문가들이 모이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 2023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이 오는 24~26일 열린다.

이번 회의는 연준 긴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팽배했던 1년 전과는 달리 미국 경제의 탄력적 성장과 물가 압력 완화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중앙은행들이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고 싶어한다. 또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은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어 그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언급도 주목된다.

오는 23일 나오는 반도체기업 엔비디아의 실적도 관심거리다. 엔비디아 주가는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올해 들어 현재까지 200% 가까이 상승했다.

⊙ 中 대출우대금리 결정

중국은 21일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신용 수요 회복과 부동산 부문 지원을 위해 모기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35명 중 19명은 1년물 LPR이 현재 3.55%에서 15bp 인하될 것으로, 나머지 16명은 10bp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응답자 35명 중 33명은 5년물 LPR이 현재 4.20%에서 최소 15bp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 글로벌 PMI

오는 23일에는 일본, 유로존, 미국 등의 8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특히 유로존과 영국 PMI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인상폭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가 상승과 견실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아직 억제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가운데 투입 및 생산 물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지표일 것이다.

⊙ 브릭스 회의

오는 22~24일에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주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40여개국이 브릭스 가입 의사를 밝힌 가운데 브릭스 외연 확장 여부가 큰 관심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 정상은 이번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푸틴 대통령은 주요 프로그램에 화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 터키 중앙은행 금리 결정

터키 중앙은행은 오는 24일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가 여전히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이다.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17.5%로 250bp 인상한 바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는 500b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中 주요 국영은행들, 금주 런던·뉴욕 거래시간 달러 매도 - 소식통들

8월14일 (로이터) -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이번 주 위안의 급격한 절하를 제어하기 위해 역내외 스팟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위안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 두 명은 16일 국영은행들의 해외 지점이 이번 주 런던과 뉴욕 거래시간 중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다른 소식통 두 명은 국영은행들이 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물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달러 매도가 주로 "위안 절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